



김순욱  
성균관대학교 교수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소장

# 청소년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청**소년, 제대로 자라주면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된다. 그런데 청소년 스스로 제대로 자라기는 어렵다. 어른들의 적절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어른들 중에서도 부모의 보살핌은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출생 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소년이 제대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이해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해에 근거하여 부모 역할을 수행하면 부모 노릇이 훨씬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된다.

그렇다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청소년이 가지는 심리적 특성은 무엇이며, 그러한 특성에 따라 부모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 첫째, 청소년은 독립심과 의존성이라는 이중감정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은 발달단계로 보아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해가는 단계이므로 스스로 판단하고 간섭없이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아직 성인이 아니기에 의존하려는 욕구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어떨 때는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다가도 때로는

어린이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주장을 하는가 하면, 때로는 부모가 자기에게 무관심하다고 투정을 부리기도 한다.

청소년 자녀의 이러한 이중감정 때문에 부모는 그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독립적으로 행동하도록 지켜보아야 할 때와 부모가 도움을 주어야 할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둘째, 청소년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도 있고 남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모가 명령으로서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면 자신도 부모 못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모에게 반항을 하게 된다. 자녀가 반항하면 흔히 부모는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게되는데, 그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자녀의 반항에 부모가 같이 화를 낸다면 부모 자녀간에 '힘겨루기'가 되어 관계가 나빠질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비위를 맞추는 부모가 되어서도 안된다. 비위를 맞추기만 하면 자녀는 이후에도 반항

하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말고 몇 가지 방법을 말해주면서 그 중에서 자녀가 선택하도록 한다.

**셋째, 청소년은 겉으로는 싫어하는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부모의 관심을 원한다.**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좋아할 만한 일을 하여 칭찬 받음으로서 부모의 관심을 얻어내려고 하지만, 자기 만에는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부모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는 엉뚱한 일이나 야단맞는 행동을 해서라도 부모의 관심을 끌고자 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기특한 점을 찾아서 칭찬을 해주어야 한다. 혹 잘못된 행동으로 관심을 끌고자 한다면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관심을 보이지 말아야 하며, 잘한 행동에 대해서만 칭찬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모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청소년은 가끔 혼자 있고 싶어한다.**

일반적으로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혼자있고 싶어한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만 지적하게 되면 자녀는 열등감을 갖게 되고, 그 상황을 피하여 혼자 있고 싶어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혼자있고 싶어할 때는 부



모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할 수 있을거야” 라고 말 해주면서, 참소성있게 기다려줘야 한다. 그리고 자녀가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준다.

**다섯째, 청소년은 호기심이 많아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것 저것 관심도 많고, 신체적 에너지도 많아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활동과 바람직하지 못

한 활동을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때로는 청소년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에도 유혹을 느끼고 빠지기 쉽다.

따라서 부모는 평소에 자녀와 대화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예측가능한 유혹(예를 들면 담배, 술, 환각제 등)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어야 한다. 유혹에 빠지기 전에, 즉 냉정한 판단이 가능할 때에 자녀와 대화를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와 같이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한 부모의 역할은 청소년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 자신도 노력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노력하는 만큼 청소년도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청소년 자신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PPFK